

지 상 법 석

공덕쌓기 정진하세요

“입으로 향기나는 세상만들자 하고
한순간 돌아서면 짜증내고 남 미워하고 죄지으니
세상살이가 지옥이 됩니다”

언정 육신영어를 믿고 스승으로 삼지 말고 하십시오. 또 내 육신 영어는 없어 지지만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바로 이 뜻을 이어 실천하고 공부하면서 산다면 부처님을 속일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곧 내 마음을 속이는 것이니 부처님을 속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영리를 위해 남을 속이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자각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짓을 지금도 우리 불자들이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부처님을 속이는

고 화내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형체가 없는 그 마음 자리가 이 우주법계를 삼켰다가 뱉었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형체가 있다면 이 우주를 못삼켜요. 없기 때문에 이 우주를 한순에 들이켰다 뱉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 신령스런 그 마음 자리 이것을 우리가 알고 본다면 금강경 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형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고려자기가 좋아서 그것을 재현하려 하지만 그게 됩니까.

공에서 만들어졌다 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니 형상계는 전부 형체나 음성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부터 공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죽을 때는 소

요. 다 부처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이 자기 마음을 속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금강경의 도리는 현상계에 있는 모든 집착이 다 실체가 없다는 공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무서워졌다고들 하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 자기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어디 이런 세상을 살아야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닦는 길 밖에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마음을 닦고 공덕을 쌓아 보세요. 그러면 다시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잘못하면 이 세계가 극락세계

럽히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요. 지구 돌이켜 보세요. 자신을 반성하세요. 그것이 바로 공부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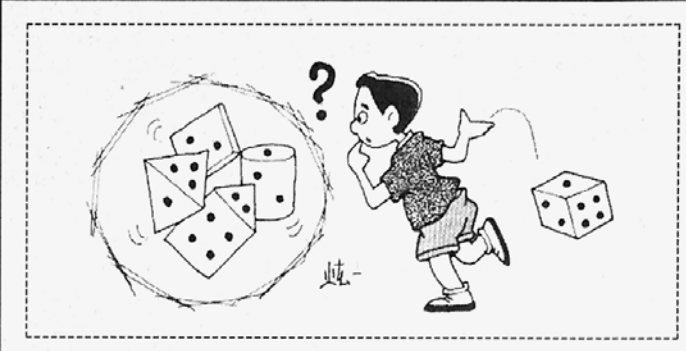
지금 이 늙은이가 뭐가 어떨다하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곧 나처럼 돼요.

이렇게 되기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을 정화해서 깨우쳐야 돼요.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금강반야바라밀은 금강반야바라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천하지 않는 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근본바탕 우리의 마음 자리에 서는 금강반야바라밀경이 자성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알기 위해 공부하고 깨우치면 그것이 곧 금강반야바라밀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 노보살님들 이 세상을 떠날 밤상을 받아 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지요. 보따리를 가지고 갈 것인지 다 털어버리고 갈 것인지 고민도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따리에 나쁜 것만 싸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나도 잘 때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자문자답을 합니다. 오래된 돌덩이 하나에 가져다 놓으면 보기에나 좋지만 이놈의 몸통이 어디에 쓰니까. 죽은 몸통이 결국 여



양자역학에서의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에서 시작하여 언어적 개념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이와 연관하여 승의제(勝義諦)와 세속제(世俗諦) 혹은 승속이제(勝俗二諦)의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승의제란 언설 불가특공인 절대 세계의 진리요,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은 무분별지(無分別智)이다. 한편 세속제란 상대적인 언어의 표현으로 나타난 진리이다. 언설에 의하지 않는 승의를 알 수 없으므로 방편으로 서 나타낸 것이다.

우선 세속이라는 말을 살펴보자. 세속에 대응되는 말에는 vyavahara, samvriti, prajñapti 등이 있다고 한다. 이 세 단어가 공통되는 의미는 세속(世俗), 속(俗), 언설(言說), 시간(世間), 가명(假名) 등이다. 이들 단어에는 언설등과 관련하여 각각 조금씩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점이 있으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vyavahara는 언어활동이라는 의미가 포함된다 생각하는 학자가 있다. 그렇다면 언어에 의한 개념이나 개념을 기초 단위로 하는 논리까지도 세속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논리의 문제를 양자역학과 관련시켜 살펴 보자.

우리의 일상적인 논리체계와 정합적으로 구성되는 대수학을 불리안 대수(Boulian algebra)라고 부른다. 그러나 양자역학에서는 이 불리안 대수학이 성립되지 않으며, 그래서 이를 비불리안 대수라고 한다. 확률과 관계되는 양자역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음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자역학의 대수와 관련하여 주사위의 예를 하나 들어 보도록 하겠다. 주사위의 1과 2가 나올 확률은 각각 1/6이다. 그러면 1이나 2가 나올 확률은 1/3이 된다. 이것은 불리안 대수의 간단한 예가 된다. 그러나 양자역학에서의 주사위는 그렇게 간단한 주사위가 아니다. 양자 주사위에서는 1과 2가 나올 확률은 0에서부터 1/3사이에서 값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 양자 역학에서의 확률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친숙하게 생각

하는 그런 확률이 아니다. 양자 주사위는 어린 아이가 가지고 노는 주사위가 아니라 아주 기묘한 주사위인 셈이다. 이러한 셈법이 비불리안 대수학의 예가 된다. 이 양자의 세계에

서는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논리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논리학에서의 명제가 자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경험 한계 내에서 형성된 의식의 틀 안에서만 자명한 것일 뿐 그것을 조금 벗어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과학은 양자역학의 발전에 힘입어 20세기에 와서야 겨우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나 슈타이너파에서는 이미 '세간에 있어서의 어떠한 세속의 것이라도 그들 일체에 지지는 집착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모두 호칭이고 명칭이고 표시일 뿐이기 때문이다. samvriti에는 '가리다'라는 의미가 있

논리는 인간 경험 한계서만 증명될 뿐 실체없는 假相은 연기설로 이해해야

다. 사물의 진실성을 가리키는 의미에서는 무명(無明)과 같은 것이다. 언설이란 산만한 마음으로 경계에 미쳐 일어나는 생각 곧 분별지(分別智)일 뿐이니, 허망치 않은 진실한 본상 즉 실상(實相)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다. 이는 언설불가득의 진여(眞如), 공성(空性)을 언설로서는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prajñapti에는 '실체성이 없는 가상(假相)'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연기기 때문에 자체로서 생하지 않고 오직 상대적으로 의존해서만 생겨나니 연기무자성공이라고 하겠다. 용수 보살은 중론 관사제품(觀四諦品) 제24장 18, 19에서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것은 우리를 공이려고 한다. 이는 가망이며 중도(中道)이다. 인연따라 생겨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으므로 일체법에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 모든 세속의 논의는 언설로 표현된 것이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최상승의 절대 진리는 어떻게 알려져 하는가. 다음 번에 승의제를 살펴 보면서 논의하여 보도록 하겠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육신쾌락 좇지 말고 불법만 스승삼아야 참 행복 자기보다 남위해 복짓는 노력이 정토가는 첩경

것이 아니겠어요. 일시적인 자기 영리를 위해서 부처님을 속이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으므로 그렇게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업을 지어가지고 이 세계가 불국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곳을 맑고 향기나는 세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마음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 항상 우리 마음을 정화시킬 줄 알아야 참으로 금강경의 도리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체의 행동거지를 그렇게 한다면 금강반야바라밀의 뜻이 그 안에 지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른 금강반야바라밀경임을 아는 것입니다. 일면서 실천하지 못하면 그건 금강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냥 거짓 경이고 거짓 법문일 뿐입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 이것을 터득해 행할 때 바로 금강반야바라밀이 금과 같고 보석과 같은 경이여 이것이 바로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에게나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법이나 신도에 뭐가 있다고 왔습니까만 그 마음 자리는 형체가 없 다하더라도 보고 듣고 기분 나쁘면 짜증내

중한 재산, 자손 모두 다 내던지고 가장 소중한 내 몸통까지 내던지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 내것이라 집착할 것이 도무지 없죠. 그러나 마음자리는 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몸통이 있을 때 지은 업을 뒤집어 쓰고 가게 됩니다.

어떤 업이나 하면 열매를 외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극락세계에 갈 반야공성을 탈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돈, 명예, 이름 이런 거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 것도 못가져 가요. 그런데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공덕이예요. 열심히 공덕 지으면 반드시 그 마음자리를 가져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 지은 업보와 죄를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삼독을 버리라 하신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과보를 받아요. 결국 화당지옥 밖에 더 가겠어요.

그런 곳에 안가려면 부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해요. 부처님 법을 따르는데 험무 소고 재관소고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하겠

가 아니라 화당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요즘 젊은 불자들이 지구 부러짓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맑고 향기나는 세계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호로만 되는게 아니예요. 마음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정화, 정화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순간 돌아서면 쓸데없는 생각과 욕심으로 꼭차버리고 쉽게 짜증내고, 화내고, 일하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그러니 어떻게 맑고 향기나는 세계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부처님 앞에 서면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참회하고 또 돌아서면 언제 그랬느냐는듯이 사뭇 생각으로 자신을 어지

우리 모두는 죽을 때 돈·명예는 가져갈 수 없지만 공덕지은 마음은 가져갑니다

기저기서 책다가 자신이 지은 업대로 가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고 공덕 짓고 복 짓고 해야돼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얘기하죠. 우리 신도님들 종파에 관계없이 그저 아무 절이나 잘 다니지요?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신도들은 참으로 너그러운 편이예요. 그저 부처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면서 선덕을 짓고 모두가 잘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국토를 이루는 길입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김병민을 건강하게
건강원은 더욱 건강하게

당뇨
위장·변비·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 (02)552-1470(대) / 팩스 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부음

주소:강남구 역삼동 627-4 금성D 2층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부, 열쇠고리 등

한남상사

Tel: (02)795-4083, Fax: (02)792-9659

스님 및 지도교사를 위한
천불가 피아노 반주 3개월 완성

교과특성

개인지도 원칙, 레슨기간 자유선택,
천불가를 통한 음악이론 및 실기지도,
시청침용 별도수업실시

•등록: 수시접수(725-7527-9)
•장소: 불교교육연구원(조계사 옆)

불교교육연구원

탈종공고

대한불교 법화종 종정 법하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산 98-9
시청명: 보각사

상기 사찰의 주지스님
일반으로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함을 이에
공고함

불기 2539년 6월

보각사
주지 안성만(광응) 합장

직인무효공고

상기 사찰의 주지 직인을
95년 6월 22일 개인하였기에
이전 사용본은 무효임을
공고함

보각사
주지 안공응(성만) 합장

불서 출판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번지
•TEL (02) 720-9372-3
•FAX (02) 723-0646

**역학·성명학에 관심이 있으신
비구니 스님만을 모집니다**

최여래심 합장

연락처 987-2721
주소: 강북구 번2동 주공APT 408동 803호

불교교육연구원

탈종공고

직인무효공고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악 풍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의 벽화·병풍 및 액자와 작품
•분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
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사내·지방·외국 어디서든 방문 또는 포우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 (02)3273-0081
온라인·국민은행 납입계좌: 822-24-0171-328(우만)

박사
.....
과정연수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8일간 연수 수료증 교부

■대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불자
■출발일: 7월 10일(대여행사약)

■남경중의약대학
중국남경: 660-7129
서울사무소: 02-511-1080, 511-2026~8

윤 조각실 (불교미술원)

■부처님 조성
■청동불 조성
■대불조성
■천불전
■개금

제14회 불교미술전 우수상 수상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16-1
전화 713-3560, 214-8963

탈종공고

평문대가집
현미리거기 비법

2분도현미 (각기 아깝다)
3분도현미 (각기 아깝다)
4분도현미 (각기 더럽다)
5분도현미 (각기 더욱럽다)
6분도현미 (각기 더더욱럽다)
백미10분도 (쌀눈이 전혀 없다)

“입맛대로 주문, 배달”

조상의 명을 지키는
샘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231-5421~2
235-1846~7